

# 齒協會誌製作代行 20周年을 맞으며

大韓齒科醫師協會誌 主幹

李 承 婁

무릇 어느 個體에 대한 歷史의 평가는 무엇보다도 그 主體가 지나온 屈曲과 振幅의 흐름을 파악하는 긴 숨결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볼때, 이번 號로 月刊發行 20주년을 맞이한 大韓



齒科醫師協會誌의 역사적 意義는 사뭇 至大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筆舌로는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술한 迂餘曲折과 難關속에서도 齒協會誌가 창간된 36년 이래 20년을 하루같이 刊行에 종사하여온 筆者로써의 오늘의 感舊之懷는 실로 無量치 않을 수 없으며, 이 기회를 빌어 오늘의 齒協會誌가 있기까지 온갖 聲援과 鞭撻을 아끼지 않으신 關係人士 여러분께 衷心의 感謝을 올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36년의 創刊歷史는 실로 至難과 哀歡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54년 孤孤之聲으로 大長程의 첫 발을 내디딘 協會誌는 1960년에 제2권, 1961년에 제3권, 1963년에 제4권 1,2호, 1964년에 제5권, 1967년에 제6권, 그리고 1969년에 제7권 1,2호만을 발행하여야 할만큼 試鍊의 陣痛期를 겪어야만 했으니, 당시 協會誌 제작여건이 얼마나 劣惡했던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會誌를 살리고 살찌우고자 하는 努力은 끊임이 없었으며 마침내 당시 協會長이시던 徐永圭博士님과 學術委員長이시던 金東順博士님의 進취적이며 果敢한 결단으로 1970년을 起點으로 協會誌의 月刊化가 定着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1970년도를 轉換點으로 月刊誌로써의 협회지가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齒協의 宿願事業의 하나가 해결되는 轉期를 맞은 뜻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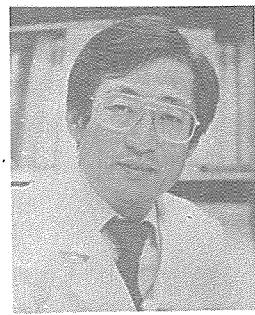
한 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勇氣와 정성에도 불구하고 試鍊은 계속되어 1970년 7,8월호와 1971년 1,2월호를 合併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주위여건은 어렵기만 했으며, 당시 대두된 協會誌의 存廢의 危機는 오늘 다시 회고하기조차 싫은 受難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齒協會誌는 不屈의 鬪魂과 意志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이제 협회지는 우리나라 齒醫學界의 대표적인 學術誌로 君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協會誌에 게재된 1,020편의 原著論文(연구논문)과 207편에 이르는 症例報告(治療經驗例)가 雄辯하듯이 協會誌는 우리나라 齒醫學 발전의 產室로써, 寶庫로써 그 役割과 所任에 忠實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協會誌는 臨床과 學術이 調和된 教育的인 學術交流의 母體로써의 本分은 물론 각종 特輯을 통하여 日常에 요긴한 정보와 지식의 傳達에도 寄與하여 왔습니다.

協會誌가 발굴한 200여편의 特輯 외에도 齒協의 명예회원인 崔曉峰氏가 32회(제13권 제1호 1975~제15권 제9호 1977)에 걸쳐 기고한 "치협 30년사"나 현 大韓齒科醫史學會會長이신



<협회지의 기능과 면모를 증폭시킨데 크게 기여한 金圭燾박사와 李丙台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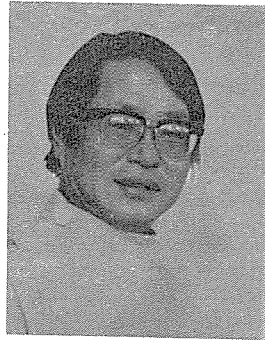


<협회지 제작을 주관해 오는 20년동안 저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좌로부터 金濬權치협명예회원, 李熙白치과연구 주간, 崔曉峰치협명예회원>

李丙台博士가 28회(제13권 제2호 1975~제15권 제5호 1977)에 나누어 기고한“그때 그 시절”이나, 현 I.C.D.韓國支部 事務總長이신 金圭炆博士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치과의학”등은 협회지의 機能과 面貌를 增幅하고 刷新시키는 훌륭한 機轉의 역할을 다 했다고 자부 합니다.

특히 金圭炆博士의 “미술작품을...”은 1975년 도인 제13권 제10호부터 지금까지 한번의 누락도 없이 무려 171회라는 協會誌 史上 미증유의 長期連載기록을 수립하며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期待가 高嘲되고 있는 企劃物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仁術의 實踐인 無齒醫村 무료진료와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등을 통해 尊敬받는 齒醫學師像 具現에 전력하시는 立志傳的 齒科醫師를 발굴하여 “意志의 齒科人”란을 통해 모두 37명의 숨은 功績을 소개하였고, “이달의 얼굴”(만수무강)란을 통하여 高齡이심에도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총55명의 元老치과의사의 활동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그분들의 意志가 後學들로 하여금 龜鑑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協會誌는 希求하여 왔습니다. 또한 協會誌의 내실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흔적도 誌史와 함께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80년 당시 池憲澤會長님과 金明國學術委員長님이 취임하면서 舊態한 表紙를 참심하게 바꾼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短片的이고 무계획적



<함께 研究합시다. 欄을 着想, 診療中 겪는 難問題 해결에 指針을 마련해주신 李炳基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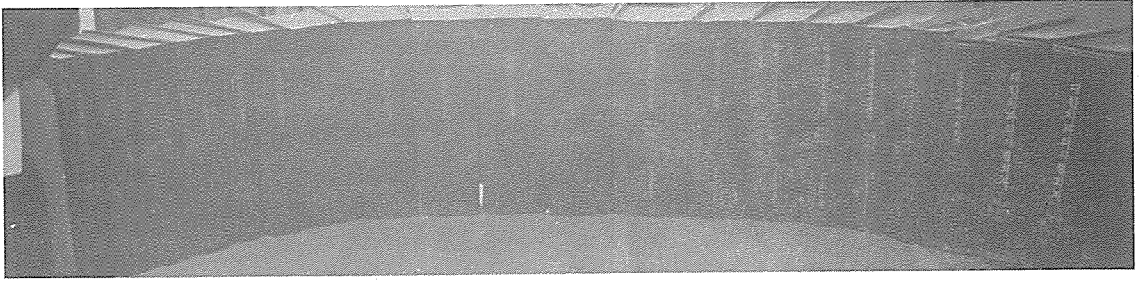
이던 特輯<시리즈>를 쇄신하여“임상가를 위한 특집”체제를 갖춰 오늘날까지 109회를 계속하여 오는 것이라든지,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임상에 필요한 토막지식을 知得할 수 있는 “지상 진료실”의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현재 道峯區에서 開院하고 계신 李炳基先生님의 着想으로 시작한 “함께 연구합시다” <질문과 해설>칼럼은 臨床家들이 진료중 겪는 難問題 해결에 좋은 지침이 되고 있으며, 과거 運營의 어려움으로 粗惡했던 低質(更紙에서 70g 模造紙로 70g 模造紙에서 80g 模造紙로)과 印刷度를 개선함으로써 독자에게 “읽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은 協會誌의 內實을 다지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으로 평가 될 만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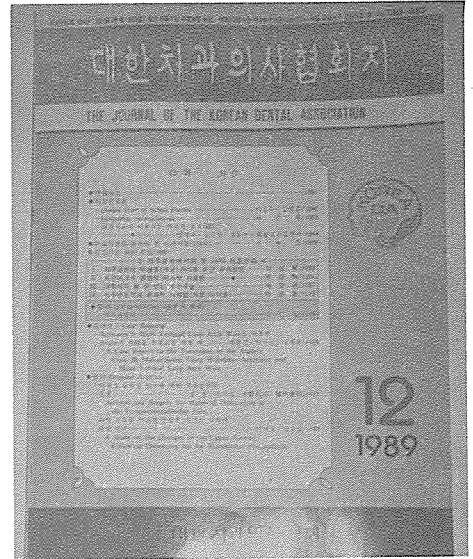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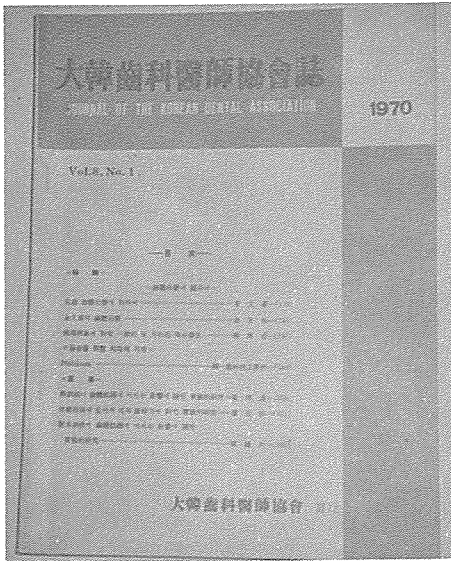
筆者는 月刊發行2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 齒協 前·現 執行부와 讀者여러분의 협회지 內實을 위한 支援과 激勵 그리고 깊은 配慮에 再三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協會誌 발행에 전력하여 오면서 現發行人이신 李鍾守會長님을 위시하여 徐永圭, 金貴善, 金東順, 金仁哲, 池憲澤, 李永玉, 申旻澈, 前會長님의 각별하며 따뜻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그리고 現編輯人이신 李種昨 學術委員長님을 비롯하여 金東順, 金用瑄, 金圭植, 金明國, 丁東均, 劉東洙, 崔翹默, 閔丙一 前學術委員長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또한 鄭鍾平, 張英一學術理事님과 梁源植, 張翼泰, 朴兌源, 南東錫 前學術理事님의 정성과 啓導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感懷는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鄉里에서 조용히 쉬고계신 前事務局長이시고 齒協 名譽會員이신 金濬權선생님께서



〈創刊号(1954년)로 부터 제27권 까지의 合本된 協會誌〉



〈定期刊行물로서의 面貌를 갖추고 첫 發行된 제8권 제1호(1970년 1월호)와 이를 起點으로 제27권 제12호(1989년 12월호)로서 感懷어린 月刊 發行 20周年을 맞았다.〉



〈1987. 4.18. 36차 광주총회석상에서 申旻澈會長으로부터 感謝牌를 받는 筆者〉

어려운 고비마다 慰勞해주시고 勇氣를 再充塡 해주신 眞實한 도움도 이날을 맞는 感懷의 一

端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筆者의 주위에서 혹은 꾸짖으며 혹은 다독거리며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讀者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기쁨은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기회를 빌어 경모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筆者는 月刊化 20주년에 즈음한 기쁨과 榮光을 讀者여러분께 드리하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反面教師로 하여 더욱 品位있고 더욱 眞率되며, 더욱 값어치 있고 더욱 알찬 내용의 책을 만듦으로써 “讀者에게 소중한 齒協會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眞實한 覺悟를 傳하고자 합니다. 부디 倍前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